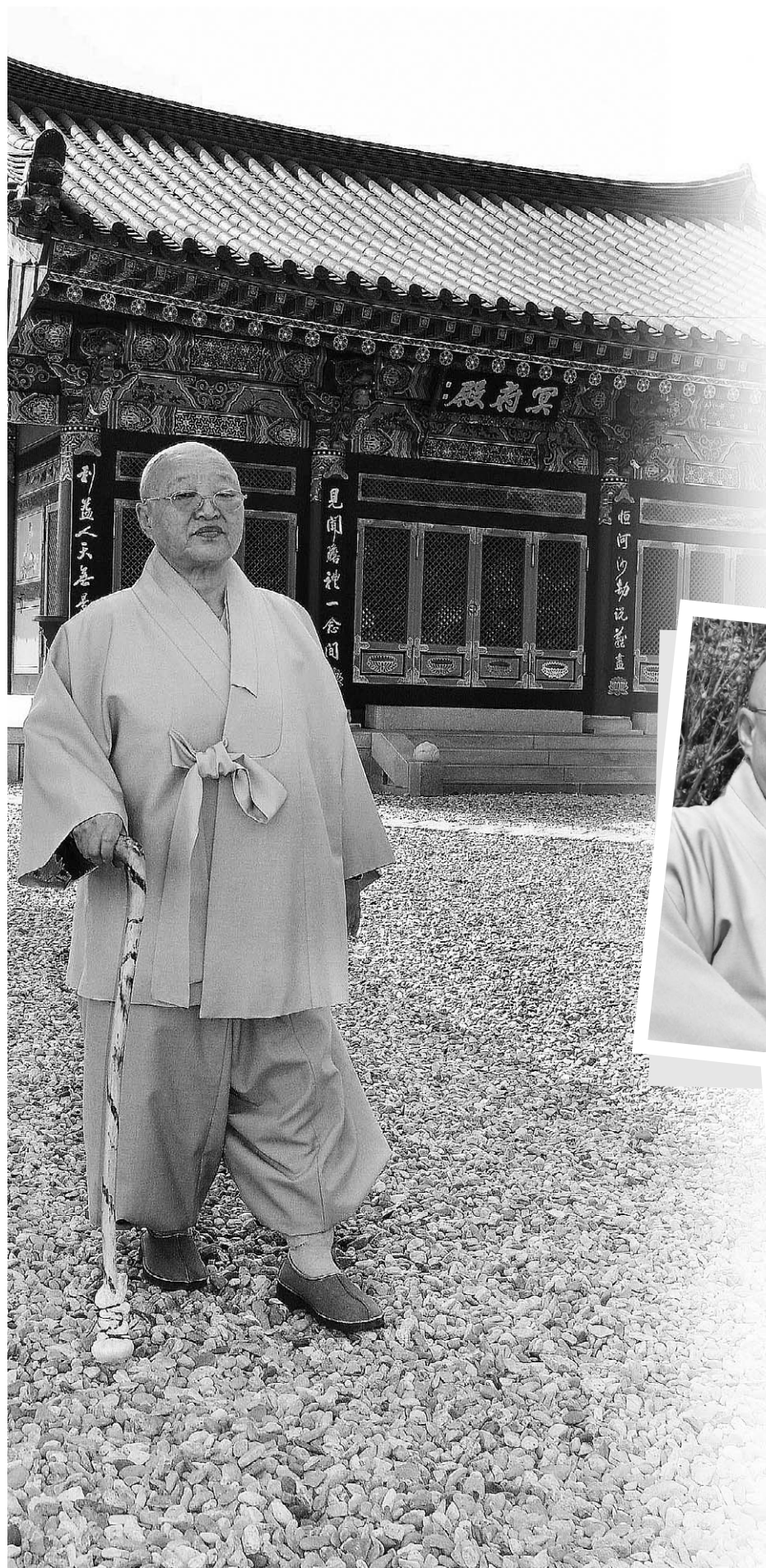


“삶이 꿈인 줄 알면 꿈 깨려고 더 열심히 살아야죠”



성경 스님(괴산 개심사 회주)

서울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다 괴산IC를 벗어나자마자마자 충북 괴산읍 시내가 한 눈에 들어온다. 읍내 초입인 역말다리 근처에 자리한 벽초 홍명회 생가 뒤편 언덕을 오르니 아담한 절, 개심사(주지 석재)가 대미산 자락에 연꽃처럼 피어 있다. 꽃으로 장엄된 사찰 경내는 단아하게 잘 정돈돼 있다. 꽃밭에서 읍내를 내려다 보면 '개심(開心)'이란 절 이름처럼 마음이 저절로 열리는 듯 하다.

1853년 조성된 충북 지방문화재 제173호 아미타불상과 관세음보살상을 봉안하고 있는 개심사는 전통사찰이다. 1994년 주지로 부임한 성경(威鏡) 스님이 주석하며 한국전쟁 이후에 신축된 대웅전을 해체하고 1997년에 주법당인 극락보전을 중창했으며, 범종각을 세워 괴산읍의 중심사찰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또 상좌인 석재 스님은 도로와 가람을 정비해 괴산읍의 포교거점으로서 인근

주민을 위한 가정법회는 군인법회, 부부법회를 주도하고 있다. 게다가 여름이면 어린이 여름불교학교를 개최해 어린이들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지역사회의 사회·문화 교육에 앞장하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들을 위해 도시락을 배달하는 등 보살행까지 펼치고 있어 개심사는 괴산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인 보금자리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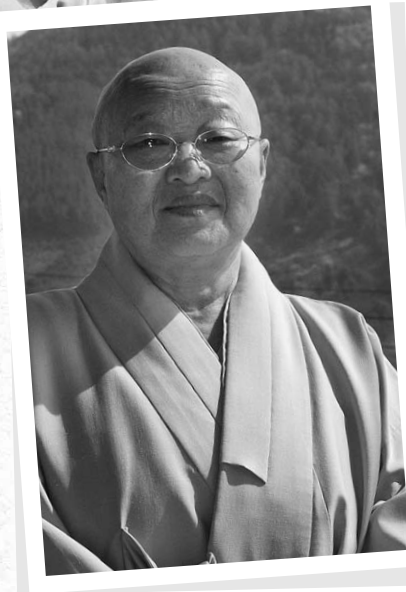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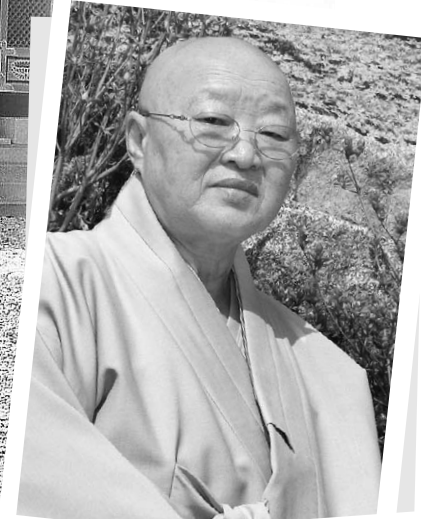
이처럼 개심사가 불과 15년만에 중창불사를 완수하고 지역포교를 이끄는 사찰이 된 것은 무엇보다 수도자 출신의 회주 성경 스님의 숨은 원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73세의 세수가 믿기지 않는 맑고 밝은 동안(童顏)에 은화한 미소를 가진 스님을 보니 필자의 마음까지 밝아진다. 참선을 하면 할수록 수도상(坐席)이란 말이 지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35년 이상 선방에서 안거를 성만한 성경 스님의 언행에서는 아상(我相)이 무너져 겸손하고 자비와 지혜가 온 몸에서 흘러나오는 참 수행자상이 느껴졌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법문을 청하니, 할 말이 없으며 손사래를 치신다. 그러나 부처님은 온

성경 스님은 참선하다가 의문이 나서 성전암에 주석하던 성철 스님을 찾아가 질문했으니 “공부 안 하고 뭘 소리 하나!”며 경책을 받은 일, 묘관음사 향곡 스님으로부터 지도를 받을 때 “니가 공부 해 보고 안된다 카나. 하면 된다 카이”하는 일화를 생생하게 들려주신다. 공부 안 되는 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참된 발심이 됐는가를 돌아보라는 말씀이 가슴에 다가온다.

1941년 2월 1일 충북 청주시 병명동에서 아버지 이재호 거사, 어머니 박중순 보살 사이의 4남 1녀 중 맏이로 태어난 스님은 어려서부터 절에 다니면서 스님들의 '인생 무상(無常)' 법문을 듣고 발심해 1957년 17세 되던 해 속리산 수정암에서 법회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삭발염의했다.

58년 법주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사마니계 수지, 62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한 스님은 59년 해인사 국일암에서 동·하안거를 성만하면서 본격적인 참선 정진의 길로 들어섰다. 76년 동화사 부도암 입승, 79년 동화사 양진암 입승, 89년 월정사 육수암 입승, 91년 내원사 입승 소임을 보며 제방선



공부 막히면 향곡·성철 스님께 달려가 질문... '경책' 받아 개심사 중창위해 기도·정진 모범보여 “하심과 감사로 살자” 당부

바도 간 바도 없건만, 내일 모레가 부처님오신날이니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부처님께서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미 왕궁가(王宮家)에 내리시며, 모태 안에서 중생제도를 마치셨다 하니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중생을 위해 49년 설법을 하셨지만, 한 마디도 한 바가 없습디다. 중생이 하열하니가 알아들도록 말씀하신 거죠. 하지만 참 수도에게는 법문 조차 군더더기일 뿐입니다.”

“이 세상은 환(幻)과 같은 꿈이라고 하는데, 수행자들이 정진하는 것도 꿈속의 일 아닐까요?”

“꿈 깨면 해탈인데, 꿈속에서라도 열심히 살아야 꿈을 깨죠.”

많은 말 보다 입가에 맴도는 스님의 미소와 눈웃음이 더 많은 법문을 설하신다.

“오랫동안 정진하시면서 법열(法悅)을 느끼거나 득력(得力)하신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공부하다 보면 환희심이 날 때가 여러 번 있 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착(着)하면 공부를 그르치기 때문에 놓고 또 놓고 가곤 하죠.”

“정진하시면서 어떤 게 가장 어려웠어요?”

“잠이든 게 본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습(習) 때문에 잠을 이길 수가 없으니 수마(睡魔)와 싸울 때가 제일 힘들었죠.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를 넘기는 가운데 공부 수월해지고 자신감도 생기는 법입니다.”

원에서 안거를 성만했다. 주로 향곡 스님의 지도를 받으며 공부한 성경 스님은 94년 내원사 3년 결사를 마치고 잠시 쉬러 왔던 개심사와 인연이 닿아 주지소임까지 맡게 되었다.

그동안 개심사 중창불사를 위해 하루 세 번 관음정근을 쉬지 않고 해 온 성경 스님은 여가가 날 때마다 스님의 작은 방을 토크 삼아 정진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게다가 활발한 포교사업을 펼치는 상좌를 위해 기도하며 일체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발원 역시 쉬지 않는다.

“포교가 더 어려워요. 잡과 화두와 싸울 때가 제일 행복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스님에게는 더 이상 좌선과 행선이 돌이 아니지만, 늘 깨어 있는 마음으로 화두를 챙기는 ‘영원한 수도’의 길에서 한 치도 벗어남이 없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자들에게 법문 한마디 해달라고 청하자, 스님은 자애로운 미소로 쉽고도 어려운 당부의 말씀을 주신다.

“불제자는 깨달겠다는 참된 발심이 가장 중요해요. 늘 일상속에서 하심하고 감사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열심히 살면 그게 수행이지요.”

그리고 보니 ‘연꽃을 들어 보시던 부처님의 미소가 스님의 미소가 아닐까’ 하는 한 생각이 떠오른다. 사람 사람 마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다면 날이면 날마다 부처님오신날이 아닐까.

글·사진=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동국의 이름으로 내일의 문명을 깨웁니다

인간과 세계, 자연을 탐구하는 동국인의 열정이야말로 위대한 문명을 배양하여 미래의 가치를 이끌어내는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미래 불교 대중화와 불교 정토 구현을 위해, 불교계 인재를 키우는 불교 종합대학 동국대학교가 불자 여러분의 보시와 후원을 기다립니다. 소액으로도 보살도를 실천하는 인재보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 문의 : 02-2260-3300 http://ilove.dongguk.edu

세상을 비추는 힘, 세상을 깨우는 이름 **dongguk UNIVERSITY**

“불기 2553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미래 인재들의 꿈

재단법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 자승 사부대중 일동

· 주요사업

-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은정학술상'을 제정, 한국불교학 발전을 위해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불교관련(교학, 교리, 문화재 등) 학술연구를 하는 박사과정 재학 이상의 인재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합니다.
-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해마다 불교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중 성적이 우수하거나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공부하기 힘든 학생들을 지원합니다.
- 생활격려금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돌아가는 지원금입니다. 저희 재단은 주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에 힘쓰고 있지만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활지원금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42-2 은정빌딩 6층
전화 02)515-9351 / 팩스 518-8998